

제목: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14절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 \_\_\_\_\_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2. 시험을 \_\_\_\_\_ 않습니다.
3. \_\_\_\_\_을 내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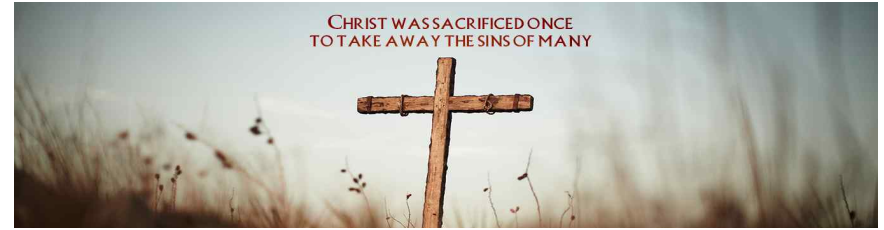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10장 5-14절 .....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1 Corinthians 10:5-14 신약 274 페이지 Presider
- 말 씬 .....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 김성민 목사  
 Message An Invisible work of God Rev. Kim
- 헌금/기도 .....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 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지금과 연결된 지나간 은혜)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서북미에서 사는 나에게 봄은 꽃과 나무들의 변화가 기쁨을 주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해(Sun)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어두워져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해가 긴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올해는 더 빨리 긴 해를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과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 구름이 한결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봄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 3년 전에도 또한 10년 전에도 같은 봄이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매 해 맞이하는 봄은 늘 나에게 새롭게 만나다. 왜 일까? 그 이유는 내가 잊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감격이 있었지만 그 감격을 잊고 올해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매해 아름다움을 더 많이 만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늘 있었던 아름다움을 너무나 많이 잊고 마치 없었던 것 같이 여기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새로움의 기쁨보다는 늘 나에게 있었던 행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만 은혜를 주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일에 임하실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게 되는 것으로 만 여기고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에도 또한 그 전년도에도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늘 임하시지 않았는가?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히 주셨다.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필요하고 늘 더 남을 만큼 주셨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기면서 지나간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고 말한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보니 그 은혜로 지금에 내가 되었다는 고백이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지나온 과거 알게 모르게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에 변함이 없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산과 같으시고 큰 바위와 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또한 움직이실 것을 깨닫고 하루 생겨난 감격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이 더 늘어난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울 해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 주시며 사랑하신다.

올해는 그 봄이 새롭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자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5/6월 행사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